



임신과 감염성 질병-2

홍명호 가정의학과 의사

위생을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임신 중 감염성 질환에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다른 한 방법은 임신에 문제가 되는 감염에 폭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감염성질환! 멀리 하기

- ★ **여행** - 임신 중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임신부는 떠나기 전에 여행의학 클리닉에서 여행 목표 지역이 안전한지를 확인할 것. 아직도 소아마비, 말라리아, 황열 같은 질병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의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 ★ **가족 예방접종** - 아이들은 물론이고 집안 식구들이 예방접종을 제때 다 하게 하는 것이 임신부가 감염성 질환에 폭로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 ★ **곤충매개질환** - 말라리아 같은 곤충매개 질환을 예방하려면 모기 퇴치를 위한 적당한 옷차림을 하고, 모기가 많은 야외활동을 삼가 한다.
- ★ **동물매개질환** -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나 이미 임신을 한 여성은 들쥐와의 접촉을 피하고, 애완동물과의 접촉이 안전한지를 전문가와 상담해 둔다.
- ★ **성전파질환** - 성관련 전염질환의 대표적인 것은 임질, 매독, 헤르페스, 후천성면역결핍바이러스, 클라미디아, 간염, 트리코모나스, 인유두종사마귀 등이다. 그 려리는 없겠지만, 임신 중에 여러 상대와 성 접촉을 하거나, 여러 상대와 성 접촉을 하는 남자와 성접촉을 하는 것을 회피해야만 성관련 전염질환의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100% 예방을 기대할 수는 없더라도 이미 감염된, 또는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대와 접촉할 경우에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도록 한다.
- ★ **임신 중 성기 헤르페스(음부 포진)**
성기에 생기는 헤르페스는 성 접촉을 통하여 전염되는 병이다. 성기에 꽤 아픈 병소가 생겨서 가렵고, 소변 볼 때 무척 아파서 소변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생기고 냉(질 분비물)이 나오고, 사타구니에 만지면 아픈 멍우리가 생긴다. 처음에는 꼭 독감에 걸린 것처럼 열이 나고 아프다. 대개는 헤르페스 병소와 증상이 반복해서 나왔다가 없어졌다 한다. 어떤 여인들은 헤르페스 병소가 자궁 목(경부)에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궁목에만 국한해서 헤르페스병소가 있으면 헤르페스가 재발하여 악화 되더라도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아무런 증상이 없다.

헬페스는 바이러스 병이기 때문에 완전히 낫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산모가 활동성 성기 헬페스가 있을 때 아기를 분만하면 아기가 헬페스에 감염될 수가 있고, 감염된 아기는 사망에 이를지도 모를 만큼 심각하게 될 때도 있다. 헬페스가 있는데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임신 했다면 의사에게 꼭 알려 주어서, 성기 헬페스에 대항하는 항 바이러스 약제를 쓰는 것이 좋다. 아기를 분만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성기 헬페스가 악화 재발 했다면 제왕절개수술을 해서 아기에게 헬페스 감염될 기회를 최소화해야 한다.

임신중 헬페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만약 임신부는 헬페스를 앓은적이 한번도 없는데 배우자는 헬페스를 앓은적이 있다면 항상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배우자가 눈에 보이는 헬페스 병소가 성기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헬페스가 전염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눈에 식별되는 헬페스 병소가 있다면 병소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성 접촉을 하면 안된다.

★ 임신과 노로 감염

노로 감염은 방광을 포함한 노로에 세균성 감염에 의한 염증인데, 임신 6주에서 24에 이르기 까지 임신한 여성에 잘 생긴다.

방광의 바로 위에 자궁이 있는데, 임신하여 자궁이 커지면

방광에서 오줌길을 눌러서 방광염같은 노로 감염이 잘 온다.

노로 감염이 되면 오줌 눌 때 아프거나, 자주 오줌이 마렵거나, 오줌을 참을 수 없거나, 오줌에 피가 비치거나 점액이 섞여 나온다. 또는 아랫배가 아프거나 뭉치고, 성기 접촉을 할 때 성교통이 있고, 찡고 떨리고, 열이 나고, 땀이 나며 오줌이 줄줄 썰 때도 있고, 밤에 오줌이 마려워 자주 깨고, 오줌량이 변하며, 오줌이 평소보다 탁하고 나쁜 냄새가 강하게 난다.

장광 부위가 아프고 압박감을 느끼고 누르면 압통이 있다.

세균이 오줌줄을 타고 신장으로 올라가면 옆구리 등이 아프고 찡고 떨리고 구역질, 구토가 난다.

노로 감염을 잘 치료하지 않으면 신장염이 생길수가 있는데, 신장염이 생기면 조기분만이나 저체중아기를 분만할 위험이 생긴다. 노로 감염을 제때에 적절히 치료하면 태아에 대한 해로움은 없다.

오줌검사로 쉽게 노로 감염을 진단할 수 있고, 임신 중이라도 적절한 항생제로 노로 감염을 별탈 없이 치료할 수 있다. 3일 내지 7일간의 항생제 투여로 태아에 안전하게 노로 감염을 치료할 수 있다.

매일 6~8잔의 물을 마시면 노로 감염이 생길 기회를 줄일 수 있다. 오줌 마려울 때 참지 말고 즉시 소변을 보는 습관을 드리는 것도 좋다. 성접촉 전과 후에





소변을 보는 습관을 갖는다. 소변을 본 후 성기를 문지르거나 닦지 말고 말리는 것이 좋다. 성기 영역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용변 후 뒷 방향에서 앞으로 닦지 말고 앞에서 뒤로 닦아야만 한다. 가능하면 물을 뿌려서 씻고 말리면 좋다. 강한 비누, 강한 뒷물용액, 스프레이, 파우더는 피한다. 속옷과 팬티는 매일 갈아입는다. 사타구니가 딱 끼는 옷은 피하고 면 내의를 입고 욕조 안에서 30분이상 몸을 담그고 있지 않는 것이 좋다.

노로 감염에 걸려서 치료 중이라면 성접촉을 피하는 것이 상식이다.

무언가 건강보조제품을 먹어야만 마음이 놓이는 임신부는 비타민C 500mg, 베타 카로틴 5만단위, 징크 50mg을 섭취해서 감염에 대비할 수도 있다,

★ 임신과 곰팡이 감염



여성의 일생에서 곰팡이 감염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는 임신 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 두 번째 석달간에는 곰팡이 감염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임신 둘째 번 석달 중에 멀건 흰색의 묘한 냄새나는 분비물이 나오는 것은 정상으로서 흔한 일이다.

임신 중 곰팡이 감염은 임신에 하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임신 중 곰팡이 감염을 잘 통제하기는 어렵다. 좀 불편하지만 구태어 치료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

임신 중에는 흘몬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변화가 곰팡이 감염이 잘 생기게 한다. 당뇨병 처럼 혈당치가 높거나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부신피질 호르몬제제를 사용했을 때 곰팡이 감염이 호발할 수 있다.

곰팡이 감염의 진단은 분비물을 현미경 검사를 해서 곰팡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하는데,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세균성 질염이 아닌가를 감별 검사 하는 것이 곰팡이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

곰팡이 치료는 임신 중에는 질 크림이나 질정으로 치료한다. 경구용 곰팡이 치료약은 아직까지 임신과 모유수유에 안전하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곰팡이 치료를 안 하면 출산 때 아기의 입에 감염이 될 수 있지만 니스타틴이란 약으로 별 어려움 없이 효과적으로 아기를 치료할 수 있다.

옷은 헐렁하고 통풍이 잘되는 면 옷을 입고, 성기는 주



기적으로 청결하게 씻고 서늘한 바람으로 잘 말려두면 곰팡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수영을 하면 곧 샤워를 하고 수영복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면 곰팡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뒷물은 피하고, 스프레이도 피하고, 향기나는 탐폰, 패드를 피하고, 거품목욕을 피한다. 색색의 칼라 향수 화장지도 피한다. 유산균 포함 요구르트를 먹고 설탕, 단 음식은 피한다.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 감염에 대항할 힘이 축적된다. 임신 중에는 무리 하지 말고 잘 쉬어야 한다.

★ 인유두종 바이러스

100여종이 있으며, 대개는 인체에 해가 없지만 사마귀를 생기게 한다. 그중에 30여종이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런 암 발생과 관련된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배우자와의 성 접촉에 의하여 감염되는데, 위험성이 낮은 바이러스는 사마귀를 만들고, 고 위험성 바이러스는 자궁경부, 질, 외음부, 항문에 암을 유발한다. 남자에서는 항문과 음경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유두종바이러스에 폭로된 뒤에 사마귀 증상이 나타나거나 바이러스가 검출되기까지의 기간은 수주일,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서 어떻게 인유두종바이러스를 보유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자궁세포진검사(자궁경부암 검사, Pap smear)로 조기 변화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 검사가 중요하다. 콘돔을 정확하게 잘만 사용하면 바이러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이 있으나 정결한 배우자와만 성접촉을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최근에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유행 시키고 있는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의 불륜, 다수의 상대와의 접촉을 거리낌 없이 부추기는 성문화는 여성 자궁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나쁜 것이라 할 수 있다. 📺